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

임영은** · 오인수*** · 임동선**** · 노은희*****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을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외국인 유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문화적응 유형을 도출한 뒤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은 분리우세형, 통합동화형, 주변화우세형, 동화주변화형의 네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통합동화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유학생활적응 총합과 대학생활적응에서는 주변화우세형에 비해 통합동화형이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문화적응에서는 주변화우세형보다 동화주변화형과 통합동화형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유형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화주변화형에 비해 통합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학 초기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과 적응 취약 집단을 위한 조기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신입생,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

I. 서론

2025년 기준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도 대비 44,472명 증가한 수치로, 전체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25). 2004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온 ‘Study Korea Project’의 영향으로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며(김현진, 김영주, 2015), 특히 2023년 8월 발표된 ‘Study Korea 300K Project’를 기점으로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1096102)

** 제1저자, SSK연구팀 박사후과정연구원, ye.lim@ewha.ac.kr

*** 참여저자, 교육학과 교수, insoo@ewha.ac.kr

**** 참여저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sunyim@ewha.ac.kr

***** 교신저자, 호크마교양대학 특임교수, roeunhee@ewha.ac.kr

이러한 변화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 캠퍼스 내 학생들의 국적과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학습 환경 및 교육 경험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유경, 장미경, 2024). 이처럼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도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고 보완하고 있지만(김봉경, 곽영, 2025),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 재학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학업 운영 체제의 차이,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문화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 및 유학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안나, 박경아, 2019; 이유경, 장미경, 2024; Dao et al., 2007).

그중에서도 특히 1학년 신입생의 경우는 고국을 떠나 한국의 학업 체제와 언어 환경, 사회적 관계망, 새로운 생활 규범 속으로 처음 진입하는 전방위적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낮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학사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존 고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Baker & Siryk, 1984; Tinto, 1993; Wilcox et al., 2005). 또한, 대학 1학년 시기는 발달적인 관점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사회적·학문적 전환기이기 때문에(Tinto, 1993),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이러한 보편적 전환기적 특성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짐에 따라, 일반 학생보다 적응 과정에서 더욱 복합적이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Wilcox et al., 2005).

이와 같은 유학 초기 적응의 중요성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지속해서 강조되어왔다. Baker와 Siryk(1984)는 대학 입학 초기 적응이 학업적 요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며, 이 시기의 적응 경험이 이후 대학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Ward와 Kennedy(1999)는 유학생의 초기 사회문화적 적응이 장기적인 적응 과정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차봉준(2022)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이 학업 지속과 사회적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유경과 장미경(2024)은 유학생의 초기 적응 시기가 이후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대응 양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외국인 유학생의 1학년 시기가 이후 대학 생활의 방향과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 신입생은 상급학년과 달리 대학 진입과 문화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에 놓여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유학 초기 문화적응 양상을 탐색하는 것은 이후 대학생활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유학 초기 적응이라는 공통된 과업에 직면하더라도, 외국인 신입생들이 보이는 적응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다. 같은 대학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어떤 학생은 비교적 원활하게 적응하는 반면, 어떤 학생은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적응 과정과 결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선행연구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적응 양상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남순현, 2010; 신경숙, 2025; 이만제, 2018).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적응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국인 신입생의 적응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응 양상의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연구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적응 양상을 이해하기 위

해 문화적응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고, 특히 문화적응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유학생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적응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특정 국적(특히 중국)과 혼합학년 표본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김현옥 외, 2014; 리첸첸 외, 2016; 서선자, 2010; 손한나 외, 2011; 오한나, 박봉순, 2024; 이예슬, 김은하, 2015; 장혜경 외, 2010), 이론적으로 제시된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이 실제 유학생 집단에서는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선행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학 초기 단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신입생의 초기 적응 프로파일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결과가 실제 유학생 집단의 다양한 적응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학년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유학 초기 전이기의 문화적응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유학 초기 적응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적응유형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및 유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만제, 2018).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을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하고,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김현옥 외, 2014; 리첸첸 외, 2016; 서선자, 2010; 손한나 외, 2011; 이예슬, 김은하, 2015; 장혜경 외, 2010),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이 문화적응유형 각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이 각 문화적응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어떻게 달리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학생활적응을 대학생활적응과 사회문화적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신입생의 적응 과정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외국인 신입생은 상급학년과 달리 대학 진입과 문화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에 놓여있으며, 이 시기의 적응 경험이 이후 대학 생활의 지속과 질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이유경, 장미경, 2024; 차봉준, 2022; Baker & Siryk, 1984; Tinto, 1993) 별도의 연구대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혼합학년 표본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적응을 이룬 학생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학 초기 단계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의 문화적응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학 초기 전이기에 놓인 외국인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및 유학생활적응을 분석하는 연구는, 기존 중국인·혼합 학년 중심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초기 적응 프로파일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외국인 신입생이 어떤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지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이 얼마나 설명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보고해 왔고(남순현, 2010; 신경숙, 2025; 이만제, 2018), 이러한 유학생들의 적응 양상의 차이를 유형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적 틀로 Berry(1997)의 문화적응 전략 모형이 제시됐다. 이 이론은 문화적응을 개인의 고정된 특성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양상을 유형적으로 살펴보는 데 활용되어 왔다(김현옥 외, 2014; 리첸첸 외, 2016; 서선자, 2010; 손한나 외, 2011; 이예슬, 김은하, 2015; 장혜경 외, 2010).

Berry(1997)에 따르면 문화적응이란 개인이 속해있던 모국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이주국의 문화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행동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주국의 문화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Berry(1997)는 개인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모국 문화에 대한 유지 정도와 이주국의 문화 수용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Berry(1997)의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응 전략은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통합 유형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주국의 문화와의 상호작용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통합 유형은 가장 양호한 심리·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예슬, 김은하, 2015; 장혜경 외, 2010). 다음으로 동화 유형은 자신의 모국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이주국의 문화에만 참여하려는 유형으로, 통합 유형과 함께 동화 유형 역시 국내 이주민과 유학생 연구에서 문화적응 정도가 높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송원영, 리난, 2008; 이만제, 2018). 반면 분리 유형은 자신의 모국 문화는 유지하지만, 이주국의 문화와는 상호작용하지 않으려는 유형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주변화 유형은 모국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 모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유형을 의미한다.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 중 주변화 유형이 가장 부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강만철, 장연, 2015; 김현옥 외, 2014; 송원영, 리난, 2008; 이예슬, 김은하, 2015).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유학생 관련 연구들에서는 Berry(1997)가 제시한 네 가지 전형적인 유형이 모든 연구 맥락에서 일관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 전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집단을 형성하는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했을 때에는 특정 유형이 나타나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혼합된 비전형적인 양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리첸첸 외, 2016; 이예슬, 김은하, 2015). 모국 문화와 이주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네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 중심 접근이 아닌, 사전에 집단을 가정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자연스럽게 유형을 식별하는 군집 분석을 통해 유학생들의 적응유형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 혼합형 또는 중간적 유형이 도출되거나 기존의 네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양상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을 탐색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이예슬과 김은하(2015), 리첸첸 등(2016)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Berry(1997)가 제시한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이 실제 유학생 집단에서는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이예슬과 김은하(2015)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결과 통합, 주변화, 분리의 세 유형만이 나타났다. 동화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내에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중국인 커뮤니티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어서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집단주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사회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편견이나 차별 역시 한국 문화로의 완전한 동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리첸첸 등(2016)의 연구 역시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하였는데, 통합, 분리, 그리고 동화와 주변화 특성이 혼재된 세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진들은 동화와 주변화의 특성이 혼재된 새로운 유형이 나타난 배경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와 실제 자신의 상호작용 능력 간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즉, 한류와 같은 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높은 수용 의지를 지닌 중국 유학생들이 심리적으로는 적극적인 동화 전략을 취하고자 하지만, 언어의 장벽과 더불어 사회적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제 한국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동화되고자 하는 적응 의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관계적 소외를 경험하는 주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불일치가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적응 양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비록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예슬과 김은하(2015)의 연구와 리첸첸 등(2016)의 연구결과들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적응유형이 이론적 범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유학생 집단의 적응 양상을 경험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국내 체류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전략이 이론적 범주를 넘어 매우 복잡적이고 가변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적응유형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양한 학년이 혼합된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유학 초기 단계에 있는 외국인 신입생들의 문화적응 프로파일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김현옥 외, 2014; 리첸첸 외, 2016; 서선자, 2010; 손한나 외, 2011; 이예슬, 김은하, 2015; 장혜경 외, 2010). 이러한 연구 공백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신입생 집단에서 어떠한 문화적응유형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론적 범주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Berry와 Sam(1997)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개인이 이주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주국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혼란과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모국 문화의 문화적 배경과 다른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정명희,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과는 구조와 방식이 확연히 다른 대학 교육 체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까지 모두 함께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넘어, 학업적인 환경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발달 단계에서의 과업까지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이수진, 이지은, 2021).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 요인을 체계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한 Sandhu와 Asrabadi(1994)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단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유학생이 이주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적 이슈와 외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유학생의 일상적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유학생들은 유학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Sandhu와 Asrabadi(1994)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실감, 조급함과 불확실성, 지각된 차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과 불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경험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서도 차별 경험과 소외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andhu, 1994; Sandhu & Asrabadi, 1994).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과 학업 수행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권란, 하정희, 2023; 유아신, 최아론, 2021; 이수진, 이지은, 2021; 주동범, 김향화, 2013; 최경식, 2019).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모든 유학생이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최경식(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진로가 불확실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수록 심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유학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더 나아가 유학생의 능동적인 적응 전략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즉, 같은 학업 환경과 생활 조건에 놓여있더라도 유학생 개인이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강도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만제(2018)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유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변화, 분리 유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지만, 통합과 동화 유형은 더욱 적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화 유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예슬과 김은하(2015)는 중국 유학생 집단 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문화적응 하위유형을 군집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도출하였고, 각 군집 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Berry(1997)가 제시한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 가운데 주변화, 통합, 분리 유형만 나타났고, 동화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합 유형이 가장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차별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과 같은 요인들의 경우 군집 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주변화 유형보다 오히려 분리 유형이 차별감과 문화적 충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주변화 유형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나 문화적 충격과 같은 특정 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을 각각 구분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힘든 상태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이유로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첸첸 등(2016)의 연구에서도 군집 별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동화/주변화 유형의 세 가지 군집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통합 우세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동화/주변화 유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동화 유형이 통합 유형 다음으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송원영, 리난, 2008; 장혜경 외, 2010).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동화와 주변화의 특성이 하나의 유형으로 결합된 점이 해당 집단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동화/주변화 유형의 유학생들은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응 과정에서는 이주국 사회와의 안정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동시에 모국 문화와의 연결성 또한 약화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느 문화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주변화적 경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더불어 이 집단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 수준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심리적 취약성이 큰 집단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이예슬과 김은하(2015), 리첸첸 등(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이 선택하는 문화적응 전략과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과 적응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는 이처럼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며, 기존 연구들 또한 모두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 한정되어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양상의 이질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하되, 중국인 유학생에 한정하지 않은 외국인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을 경험적으로 도출하고,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유학생 문화적응 연구의 범위와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3.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

Baker와 Stryk(1989)에 따르면 대학생활적응이란 학생이 목표한 학업적 성과를 달성하고, 대학 내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와 다양한 활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왕언러, 2015). 대학 입학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학이라는 새로운 학업 및 생활환경에 본격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적응 과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이태현, 김민지, 2016). 여기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단순히 학업 적응과 성취의 문제를 넘어, 이주국에서의 학업 환경과 사회적 규범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치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Baker와 Stryk(1984)는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의 다차원적 개념을 체계화하여 대학생활적응 척도인 SACQ(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일반적 적응(기관 적응)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학업적 적응은 개인이 대학의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의미하며, 시간 관리, 학업 동기, 전공 만족도, 실제 학업성취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 생활 중 경험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안녕,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일반적 적응(기관 적응)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를 의미한다(이수진, 이지은, 2021).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대학생활적응 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낯선 이주국의 언어와 문화, 사회적 규범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반복적으

로 언급해 왔다. 백성희(2013)는 외국인 유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문화충격 수준은 낮을수록, 대학의 인종차별 풍토를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대학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높을수록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유지형 등(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성격강점 역시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 역시 다수 수행됐는데, 주동범과 김향화(2013)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지각된 차별감과 문화적 충격, 향수병 등이 유학생들의 학업적·사회적·정서적 적응 전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힌 바 있다. 주학 등(2023)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숙(2025)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고하며, 단순한 정서 관리 중심의 개입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수용성을 강화하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유학생들이 어떠한 문화적응 전략과 유형을 취하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과 대학생활적응 양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통합 유형이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고, 분리 및 주변화 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 수준과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해 왔다(서선자, 금명자, 2012; Ailing, 오인수, 20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게 문화적응유형을 사전에 이론적으로 규정한 변수 중심 접근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유학생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혼재된 적응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예슬과 김은하(2015)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합 유형이 가장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보인 반면, 분리 유형은 가장 높은 스트레스와 가장 낮은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첸첸 등(2016)의 연구에서도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동화/주변화 유형의 세 가지 군집이 확인되었고, 통합 우세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동화/주변화 유형은 가장 높은 스트레스와 가장 낮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 양상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미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혼혈학년 표본을 중심으로 수행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유학 초기 전이기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약한 문화적응 양상과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 변인 간 상관이나 회귀분석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아, 같은 스트레스 수준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화적응유형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유학생생활적응의 질이 달라지

는지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활적응을 단일 차원으로 보았던 기존의 접근을 확장하여 유학생활적응을 대학생활적응과 사회문화적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 수행과 대학 및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등 대학이라는 제도적 환경 내에서의 기능적 적응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문화적응은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의 이해,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관계 형성 등 주로 학업 외의 일상생활 중심의 교외 활동을 의미한다(왕언려, 2015; 정유리, 2018). 이러한 구분은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이 교내 활동과 같은 대학생활적응과 교외 활동 중심의 사회문화적응으로 나뉘고,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적응 과제와 역량 역시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외국인 신입생의 적응 과정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유학생 중에는 어학원 수학 기간을 포함한 일정 기간 한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적응하고 있으나, 대학에서의 학업 적응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두 적응 차원은 같은 개인 내에서도 다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학생활적응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외국인 신입생의 적응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임영은 외, 2026). 이러한 분석은 외국인 신입생의 적응 과정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과 적응 취약 집단에 대한 조기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설문 조사는 1학년 1학기 중후반인 2025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외국인 신입생들이 대학 입학 이후 한국 대학의 학업 체제와 생활환경을 경험하고 중간고사를 치른 후 그 결과까지 확인한 시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초기 적응 경험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태에서 유학 초기 문화적응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총 30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부분적으로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21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국적	중국	145	68.4

	일본	11	5.2
	미얀마	10	4.7
	몽골	8	3.8
	대만	8	3.8
	러시아	7	3.3
	기타	23	10.8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75	35.4
	6~12개월	48	22.6
	12~36개월	71	33.5
	36~72개월	12	5.7
	72개월 이상	6	2.8
한국어 능력 (TOPIK)	1급	17	8.0
	2급	20	9.4
	3급	50	23.6
	4급	54	25.5
	5급	33	15.6
	6급	38	17.9

2. 연구 도구

1)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유형은 Barry(2001)의 EAAM(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변안하고 수정 및 축약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동화(3문항), 통합(3문항), 분리(3문항), 주변화(3문항)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화적응 유형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서정 등(2023)의 연구에서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59, .790, .799, .86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4, .725, .707, .886으로 나타났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s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중(1995)이 번역하고, 이소래(1997)가 수정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과 맥락에 맞게 일부 문항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지각된 차별감(2문항), 향수병(3문항), 사회적 고립 및 열등감(3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보준과 허소영(2024)은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를 .879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94로 나타났다.

3) 유학생활적응

유학생활적응은 왕언려(2015)가 Baker와 Siryk(1989)의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Berry(1997)의 문화적응 이론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첫째는 대학생활적응(학업 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 적응)의 10문항, 둘째는 사회문화적응(신체 적응, 문화적응, 심리 적응)의 11문항으로 총 21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왕언려(2015)는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를 .871, 대학생활적응을 .863, 사회문화적응을 .864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37, .577, .86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 수준 등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군집 분석을 통해 구분된 문화적응 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넷째, 외국인 신입생이 어떤 문화적응 유형에 속하는지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유형 중 통합은 유학생활적응 총합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85$, $p<.01$), 대학생활적응($r=.468$, $p<.01$)과 사회문화적응($r=.395$, $p<.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동화 역시 유학생활적응 총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311$, $p<.01$), 통합 및 동화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전반적인 유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주변화는 유학생활적응 총합($r=-.274$, $p<.01$), 대학생활적응($r=-.191$, $p<.01$), 사회문화적응($r=-.273$,

$p<.01$)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주변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및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통합과 동화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63$, $p<.01$; $r=-.136$, $p<.05$). 이는 통합·동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전반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분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227$, $p<.01$), 주변화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461$, $p<.01$).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생생활적응 총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412$, $p<.01$), 대학생활적응($r=-.196$, $p<.01$)과 사회문화적응($r=-.473$, $p<.01$) 모두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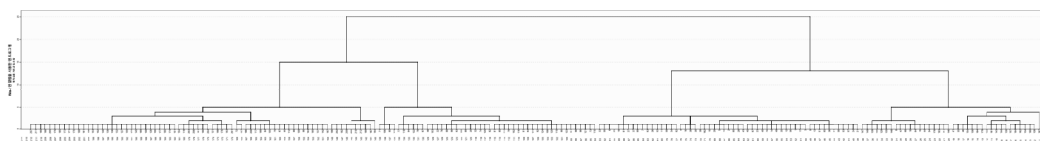
	1	2	3	4	5	6	6-1	6-2
1	1							
2	.377**	1						
3	-.292**	-.042	1					
4	0.104	-.249**	-.005	1				
5	-.136**	-.263**	.227**	.461**	1			
6	.311**	.485**	-.020	-.274**	-.412**	1		
6-1	.206**	.468**	0.042	-.191**	-.196**	.811**	1	
6-2	.316**	.395**	-.058	-.273**	-.473**	.918**	.514**	1
M	2.58	3.39	3.21	2.29	2.76	3.27	3.14	3.39
SD	0.80	0.71	0.66	0.86	0.63	0.45	0.44	0.58

1. 문화적응유형_동화, 2. 문화적응유형_통합, 3. 문화적응유형_분리, 4. 문화적응유형_주변화, 5. 문화적응스트레스, 6. 유학생생활적응총합, 6-1. 대학생활적응, 6-2. 사회문화적응

* $p < .05$, ** $p < .01$

2. 문화적응유형 군집 분석

문화적응유형(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어떤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고자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와 Ward 방법을 사용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군집화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5개 군집에서 4개 군집으로 합쳐지는 단계 이후 결합 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집 간 거리도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 4개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1] 참조). 이후 4개 군집을 기준으로 K-평균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 군집 중심이 8회 반복에서 수렴하였고, 각 군집의 사례 수는 70명(33.0%), 55명(25.9%), 60명(28.3%), 27명(12.7%)으로 지나치게 작거나 편중된 군집이 나타나지 않아 군집 크기 측면에서도 타당한 구성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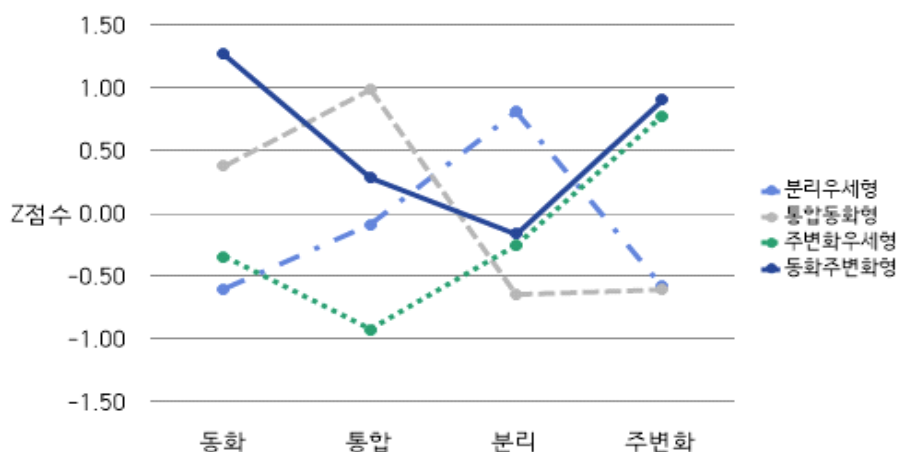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적응유형 z 점수를 변수로 한 계층적 군집 분석 덴드로그램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군집 별 표준화 평균값을 확인하였으며,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각 하위요인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도 함께 제시하였다(〈표 3〉, [그림 2] 참조). 첫째, 군집1은 분리 점수가 높고(0.81), 동화(-0.59)와 주변화(-0.57)는 낮으며, 통합은 평균에 가까운 수준(-0.08)을 보여 ‘분리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2는 통합 점수가 매우 높고(0.99), 동화(0.38)는 다소 높은 반면, 분리(-0.64)와 주변화(-0.60)는 모두 낮게 나타나 ‘통합동화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군집3은 주변화 점수가 높고(0.78), 동화(-0.34), 통합(-0.92), 분리(-0.25)가 모두 낮은 수준을 보여 ‘주변화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군집4는 동화(1.27)와 주변화(0.91)가 모두 높고, 통합(0.29)과 분리(-0.15)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동화와 주변화 경향이 동시에 높은 ‘동화주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 문화적응유형 군집 분석 결과(군집 별 표준화 점수와 원점수 평균)

변인	군집1 (n=70) 분리우세형			군집2 (n=55) 통합동화형			군집3 (n=60) 주변화우세형			군집4 (n=27) 동화주변화형		
	z	M	SD	z	M	SD	z	M	SD	z	M	SD
동화	-0.59	2.13	0.54	0.38	2.92	0.65	-0.34	2.33	0.67	1.27	3.63	0.63
통합	-0.08	3.32	0.49	0.99	4.09	0.55	-0.92	2.73	0.46	0.29	3.59	0.49
분리	0.81	3.76	0.44	-0.64	2.77	0.56	-0.25	3.03	0.56	-0.15	3.10	0.60
주변화	-0.57	1.80	0.55	-0.60	1.78	0.53	0.78	2.98	0.71	0.91	3.10	0.69



[그림 2] 표준화된 군집 중심점을 이용한 최종 하위 군집의 프로파일

3. 군집 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 수준 차이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Scheffé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유형 군집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F=9.799$, $p<.001$)와 유학생활적응 총합($F=14.729$,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통합동화형이 분리우세형, 동화주변화형, 주변화우세형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b<a, d, c$). 유학생활적응 총합과 대학생활적응에서는 주변화우세형에 비해 통합동화형이 유의하게 높았고($c<b$), 사회문화적응에서는 주변화우세형보다 동화주변화형과 통합동화형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c<d, b$).

〈표 4〉 문화적응유형 집단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활적응 차이

변인	분리우세형 (a)	통합동화형 (b)	주변화우세형 (c)	동화주변화형 (d)	F	사후검증
	M(SD)	M(SD)	M(SD)	M(SD)		
문화적응스트레스	2.78(0.65)	2.41(0.53)	2.98(0.47)	2.94(0.78)	9.799***	b(a,d,c)
유학생활적응총합	3.27(0.37)	3.54(0.39)	3.03(0.41)	3.32(0.54)	14.729***	c(b)
대학생활적응	3.13(0.39)	3.38(0.40)	2.93(0.39)	3.18(0.49)	11.510***	c(b)
사회문화적응	3.39(0.51)	3.68(0.50)	3.11(0.58)	3.44(0.67)	10.271***	c(d,b)

*** $p<.001$

4.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신입생이 어떤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지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동화주변화형을 기준 범주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유학생활적응 총점은 두 하위영역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되어 하위영역들과 완전한 선형종속 관계를 가지므로,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총점을 제외하고 대학생활적응과 사회문화적응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5〉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준 범주: 동화주변화형)

종속변수	예측변수	B	표준오차	wald	p	Exp(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분리우세형	절편	3.871	2.323	2.778	0.096			
	문화적응스트레스	-0.555	0.414	1.796	0.180	0.574	0.255	1.292
	대학생활적응	-0.121	0.639	0.036	0.849	0.886	0.253	3.097
	사회문화적응	-0.280	0.487	0.330	0.566	0.756	0.291	1.964
통합동화형	절편	1.685	2.506	0.452	0.501			
	문화적응스트레스	-1.527	0.459	11.066	0.001	0.217	0.088	0.534

종속변수	예측변수	B	표준오차	wald	p	Exp(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주변화 우세형	대학생활적응	1.127	0.698	2.606	0.106	3.086	0.786	12.122
	사회문화적응	-0.162	0.528	0.094	0.759	0.850	0.302	2.394
	절편	8.138	2.781	8.565	0.003			
	문화적응스트레스	-0.305	0.453	0.455	0.500	0.737	0.303	1.790
	대학생활적응	-1.137	0.680	2.796	0.094	0.321	0.085	1.216
	사회문화적응	-0.915	0.539	2.881	0.090	0.401	0.139	1.152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58.02$, $df=9$, $p<.001$, Nagelkerke $R^2=.257$), 독립변수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chi^2=15.24$, $df=3$, $p=.002$)와 대학생활적응($\chi^2=14.48$, $df=3$, $p=.002$)은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문화적응($\chi^2=3.78$, $df=3$, $p=.287$)은 그렇지 않았다.

개별 모수 추정값을 살펴보면, 동화주변화형과 비교했을 때 분리우세형 및 주변화우세형에 속할 가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 중 어느 변인으로도 유의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모든 $p>.05$). 반면 통합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다($B=-1.53$, $SE=0.46$, $Wald=11.07$, $p=.001$, $Exp(B)=0.22$). 이는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1점 높아질 때마다 동화주변화형보다 통합동화형에 속할 오즈가 약 0.22배로 감소함을, 역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1점 낮아질 때마다 약 4.6배($=1/0.217$)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통합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학생활적응 역시 통합동화형 구분에서 양의 방향성($B=1.13$)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p=.106$). 종합하면,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 가운데 통합동화형만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단일 변인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나머지 세 유형 간 구분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수집된 횡단자료에 기반하므로, 이러한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5. 국적 및 체류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주요 변인의 차이

1)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학생의 국적을 7개 집단(중국, 일본, 미얀마, 몽골, 대만, 러시아, 기타)으로 구분하여 국적과 군집유형 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과 문화적응유형 간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참조).

〈표 6〉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

	국적							전체	χ^2	p
	중국	일본	미얀마	몽골	대만	러시아	기타			
분리	50	5	3	3	0	1	8	70	11.739	.860
우세형	(34.5)	(45.5)	(30.0)	(37.5)	(0.0)	(14.3)	(34.8)	(33.0)		
통합	36	2	4	2	3	1	7	55		
동화형	(24.8)	(18.2)	(40.0)	(25.0)	(37.5)	(14.3)	(30.4)	(25.9)		
주변화	40	2	3	2	3	4	6	60		
우세형	(27.6)	(18.2)	(30.0)	(25.0)	(37.5)	(57.1)	(26.1)	(28.3)		
동화	19	2	0	1	2	1	2	27		
주변화형	(13.1)	(18.2)	(0.0)	(12.5)	(25.0)	(14.3)	(8.7)	(12.7)		
전체	145	11	10	8	8	7	23	2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국적별 주요 변인의 평균과 ANOVA 결과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표 7〉 참조).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국적에 따른 유의한 F값이 나타났으나($F=2.53$, $p<.05$), 사후검정에서 특정 국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국적에 따른 뚜렷한 집단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외 유학생활적응 총합($F=.88$, $p=.51$)과 대학생활적응($F=.98$, $p=.44$), 사회문화적응($F=1.14$, $p=.34$)에서는 국적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차이

국적	n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활적응총합		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	
		M	SD	M	SD	M	SD	M	SD
중국	145	2.66	0.55	3.30	0.45	3.15	0.45	3.44	0.58
일본	11	2.75	0.83	3.01	0.42	2.86	0.43	3.14	0.50
미얀마	10	3.06	0.73	3.15	0.35	3.26	0.23	3.05	0.68
몽골	8	3.08	0.48	3.32	0.48	3.13	0.50	3.49	0.50
대만	8	2.89	0.62	3.30	0.38	3.21	0.38	3.39	0.48
러시아	7	3.00	0.95	3.23	0.56	3.10	0.33	3.35	0.78
기타	23	3.05	0.77	3.27	0.45	3.19	0.39	3.34	0.61
F		2.525		.881		.976		1.136	
p		.022		.510		.443		.343	

3) 체류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

체류 기간(예: 6개월 미만, 6~12개월, 12~36개월, 36~72개월, 72개월 이상)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체류 기간과 군집유형 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체류 기간과 문화적응유형 간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체류 기간 범주

(특히 72개월 이상)의 사례 수가 적어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40%로 나타났으므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8〉 체류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

	체류 기간					전체	χ^2	p
	6개월 미만	6~12개월	12~36개월	36~72개월	72개월 이상			
분리 우세형	26 (34.7)	19 (39.6)	22 (31.0)	3 (25.0)	0 (0.0)	70 (33.0)	15.301	.225
통합 동화형	19 (25.3)	11 (22.9)	19 (26.8)	3 (25.0)	3 (50.0)	55 (25.9)		
주변화 우세형	22 (29.3)	14 (29.2)	21 (29.6)	3 (25.0)	0 (0.0)	60 (28.3)		
동화 주변화형	8 (10.7)	4 (8.3)	9 (12.7)	3 (25.0)	3 (50.0)	27 (12.7)		
전체	75 (100.0)	48 (100.0)	71 (100.0)	12 (100.0)	6 (100.0)	212 (100.0)		

4) 체류 기간별 주요 변인의 평균과 ANOVA 결과

체류 기간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서만 체류 기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2.87$, $p<.05$), Scheffé 사후검정에서는 어떤 두 집단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활적응 총합, 사회문화적응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F 값 모두 $p>.05$), 동질적 부분집합 분석에서도 모든 체류 기간 집단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표본에서 유학 기간의 길이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 수준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9〉 체류 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차이

체류 기간	n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활적응총합		대학생활적응		사회문화적응	
		M	SD	M	SD	M	SD	M	SD
6개월미만	75	2.76	0.54	3.24	0.42	3.11	0.40	3.36	0.57
6~12	48	2.78	0.56	3.26	0.41	3.14	0.42	3.38	0.56
12~36	71	2.77	0.66	3.25	0.43	3.10	0.43	3.38	0.55
36~72	12	2.85	1.07	3.48	0.75	3.47	0.65	3.49	0.88
72개월 이상	6	2.27	0.70	3.68	0.38	3.47	0.27	3.88	0.68
F		.992		2.079		2.865		1.209	
p		.413		.085		.024		.308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을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두 변인이 문화적응유형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1학년 신입생을 표집하되, 중국 국적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실제 대학 현장의 국적 구성 맥락 속에서 유학 초기 문화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탐색적 의의가 있다.

1. 문화적응유형별 특성과 맥락적 해석

군집 분석 결과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유형은 분리우세형, 통합동화형, 주변화우세형, 동화주변화형의 네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Berry(1997)가 제시한 통합·동화·분리·주변화라는 이론적 네 유형뿐 아니라, 통합과 동화, 동화와 주변화가 혼재된 비전형적 유형이 실제 대학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동화형은 모국 문화 유지와 한국문화 수용을 모두 높게 지향하면서 동시에 동화 경향도 강한 집단으로, 대학이라는 제도적 환경과 한국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는 학생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과 학업 참여, 또래 및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모국 네트워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되 한국 대학과 지역사회에 생활의 중심을 두는 ‘고기능 이중문화 지향자’에 가깝다. 특히 1학년이라는 전환기 맥락에서 이들은 한국어·수업·행정 체계에 빠르게 편입될 필요성과 모국 문화 정체성 유지 욕구를 동시에 조율해 나가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주변화우세형은 모국과 한국 어느 문화와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정체성·관계망 측면에서 공백을 크게 경험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양쪽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지지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학 초기의 적응 과제를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학년 신입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아직 자신에게 맞는 적응 전략을 찾지 못한 ‘전이기 위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학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적응상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으로 볼 수 있다.

동화주변화형은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동화 전략과 두 문화 사이에서 소속감을 확보하지 못한 주변화 경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가적 프로파일을 보여주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한국어 사용, 한류 문화 소비, 한국인 또래와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잘 편입되고자 하지만, 실제 관계 맥락에서는 안정된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형은 특히 유학 초기 1학년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데, 한국 대학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과 모국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긴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분리우세형은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는 강하지만 한국문화와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으

로 선택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모국인 친구, 온라인 커뮤니티 등 비교적 밀도가 높은 동향 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한국문화와의 상호작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학 초기 1학년이라는 점에서 분리 전략은 단기적으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어·전공 학습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한하여 유학생활적응과 진로 탐색의 폭을 좁힐 위험이 있다.

이처럼 네 유형은 Berry(1997)의 이론적 범주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1학년 외국인 신입생이 놓인 유학 초기의 전환기적 맥락 속에서 복합적이고 동적인 문화적응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파일로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1학년 신입생처럼 통합을 지향하되 아직 안정된 적응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집단에서 양가적·과도기적 프로파일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기존 정태적 유형론이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유학 초기 단계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2.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활적응의 관계 해석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사회문화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합동화형은 네 유형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유학생활적응 총합과 대학생활·사회문화적응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저스트레스-고적응’ 유형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통합 전략이 심리적·사회문화적 적응 모두에서 유리하다는 Berry(1997, 2005)의 이론적 모형과, 통합 유형을 취하는 이주민이 다른 유형보다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동화 유형을 띄는 이주민이 사회문화적 적응상의 어려움이 가장 적다고 보고한 Ward와 Rana-Deuba(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다시 말해, 통합과 동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생들이 학업·관계·일상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주변화우세형은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장 낮은 유학생활적응 수준을 보여, 유학 초기 대학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험 집단임을 확인해 준다. 대학생활적응과 사회문화적응 모두에서 통합동화형뿐 아니라 동화주변화형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사실은, ‘어느 문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상태’가 유학생에게 큰 심리·기능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주변화를 가장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제시한 Berry(1997, 2005)의 전망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집 분석 연구에서 주변화형이 사회문화적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적 지지 결여와 연계된다는 결과(리첸첸 외, 2016)와도 맥을 같이 한다.

동화주변화형은 통합동화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나, 사회문화적응에서는 주변화우세형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에 참여하려 하지만, 소속감·관계의 질 측면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동화 지향적이지만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하이브리드형의 높은 스트레스 양상을 보고한 Schwartz 등(2010)과, 동화 전략이 소외(주변화) 성향과 결합할 경우 차별 인식과 정서적 부담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류근필(2022)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 동화 전략이 충분한 제도적·정서적 지지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부담과 관계적 소외를 동시에 강화

하는 위험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국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는 것을 적응 목표로 삼는 기존 실천 관점에 중요한 보완을 요구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동화주변화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합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다. 다시 말해,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생이 동화주변화형보다는 통합동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경험이 통합·동화 전략을 유지·강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분리우세형과 주변화우세형은 동화주변화형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대학생활·사회문화) 변인이 유의한 구분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집단의 경우 언어 능력, 경제적 자원, 전공 특성, 기존 한국 체류 경험 등 다른 요인들이 문화적응 전략의 선택과 유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국적 구성, 표본 한계와 해석의 범위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와 주요 변인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국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활적응에서도 제한적인 차이만이 관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 표본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이 68.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적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과 관련이 있다.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연구결과가 중국인 유학생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석상의 제약 요인이지만, 동시에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구성에서 여전히 중국 국적 유학생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대부분이 중국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혼합학년 표본을 분석해 온 것과 달리, 1학년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중국 및 비중국 국적 학생을 함께 포함하여 유학 초기 전이기의 문화적응 양상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그러나 국적별 사례 수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중국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표본에서 관찰된 초기 문화적응 양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체류 기간에 따른 분석에서도 문화적응유형 분포와 주요 변인 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 전원이 ‘입학 초기 1학년 신입생’이라는 공통된 시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의 명목상 구분(예: 6개월 미만, 6~12개월 등)보다 실제 적응 경험의 차이가 아직 충분히 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유학 초기 전이기에 체류 기간 자체보다 유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적응 경험과 환경적 맥락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 양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표본 특성은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유학생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1학년 외국인 신입생이 경험하는 초기 문화적응 프로파일과 스트레스·적응 양상’에 관한 탐색적 증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선행연구와의 연계 및 이론적 함의

본 연구결과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 제기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국적(대부분 중국)에 한정된 유학생 집단이나, 1학년부터 상급학년까지 혼합된 표본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과 스트레스·적응의 관계를 분석해 왔기 때문에, 유학 초기 1학년 신입생의 특수한 전이기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혼합학년 표본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한국 생활과 대학 환경에 적응한 학생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고, 유학 초기 단계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학업 중단이나 귀국을 선택한 학생들은 연구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입학 첫 학기 1학년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유학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응유형의 다양성과 취약 집단의 스트레스·적응 양상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냈다. 특히 통합동화형·동화주변화형·분리우세형·주변화우세형이라는 네 프로파일은, 이예슬과 김은하(2015)와 리첸첸 외(2016)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고한 통합·분리·주변화·동화/주변화 유형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1학년 신입생’이라는 전환기 맥락에서 동화주변화형과 주변화우세형이 가지는 취약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Berry(1997)의 유형론이 실제 유학생 집단에서는 혼합형·전이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국내 선행연구의 논의를, 유학 초기 전이기라는 시점 정보와 연결해 더욱 정교하게 확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사회문화적응 간 관계가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응이 낮다’는 선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온 한계를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동화주변화형은 사회문화적응 수준은 주변화우세형보다 높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통합동화형보다 높게 나타나, 같은 수준의 사회문화적 참여가 모든 학생에게 같은 정서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뿐 아니라 ‘어떤 관계 질과 소속 경험 속에서 참여하는가’가 유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적과 체류 기간이 문화적응유형과 스트레스·적응을 일괄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 국적·기간 중심의 비교를 넘어, 언어 능력, 사회적 지지, 경제적 자원, 전공·진로 전망, 대학의 제도적 지원 수준, 차별 경험 등 다층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문화적응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 대학 현장에서의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현장에서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 설계에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유학 초기 단계에서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학생활적응 수준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초기 진단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통합동화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반면, 주변화우세형과 동화

주변화형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취약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 초기에 간단한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문화적응유형과 스트레스·적응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변화우세형과 동화주변화형 학생들을 고위험군으로 설정하여,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업·생활 지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문화적응유형별로 다른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통합동화형은 비교적 안정된 이중문화 역량과 대학생활적응을 보인 집단으로, 이들을 단순한 지원 수혜자가 아니라 또래 멘토, 학과 튜터, 다문화 리더 등으로 양성하여 다른 유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리우세형의 경우 모국 문화에 대한 애착과 모국인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한국어 사용과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학생 및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적이 혼합된 소규모 프로젝트 수업, 언어·문화 교류 동아리, 팀 기반 학습 등과 같은 ‘브릿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화우세형과 동화주변화형은 문화적 소속감의 결여와 높은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으로 나타났으므로, 언어·학업 지원에 더해 차별 경험, 소속감 부족, 이중문화 정체성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집단상담, 이중문화 역량 강화 교육 등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유학 초기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유학 초기 1학년 시기의 대학생활적응이 통합동화형 소속 가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통합동화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문화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외국인 신입생의 문화적응은 개인 차원의 적응 노력 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대학 공동체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대학생활 영역에서 포용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문화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캠퍼스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유학생을 일방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언어적 자산을 지닌 대학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포용적 태도를 확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나아가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며 서로의 문화적·언어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 협력 기반 프로젝트 학습(Intercultural Collaborative Project-Based Learning)과 같은 교육적 접근 역시 상호문화 역량과 공동체 소속감을 함께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실천적 제언은 개별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문화적응유형별 특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학 유학생 지원 정책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해당 대학의 특성상 표본이 여성 집단으로 구성되고 중국 국적 유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집단이나 다른 유형의 대학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둘째, 단일 시점의 횡단 연구 설계로 인해 문화적응유형 간 전략 이동과 스트레스·적응의 시간적 궤적을 추적하지 못했으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역시 인과 관계라기보다 상관적 연관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국적·체류 기간 외에 전공, 경제적 수준, 장학 수혜, 사회적 지지, 차별 경험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넷째, 군집 분석과 자기보고식 설문 자료에 기반한 양적 연구 설계로 인해 각 문화적응 유형에 속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적응 경험과 의미구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대학을 포함한 다기관·다표본 설계를 통해 국적·지역·대학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분포와 스트레스·적응 양상을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 연구를 통해 1학년 입학 시점부터 졸업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의 변화와 초기 유형이 학업 지속·정신건강·진로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면, 더욱 정교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유형을 토대로 각 유형에 속한 학생들을 심층 면담하는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한다면, 통합동화형·동화주변화형·분리우세형·주변화우세형이 경험하는 일상적 서사와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철, 장연. (2015). 중국과 한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 비교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2), 1-18.
- 교육부. (2025).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
- 권란, 하정희. (2023).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문화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3), 1239-1259.
- 김봉경, 광영. (2025).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관련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4(5), 113-127.
- 김서정, 오인수, 노은희, 이승은. (2023).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의 개인 심리적·대인 관계적 특성 차이. *교육문화연구*, 29(6), 613-640.
-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 김현진, 김영주. (2015).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문화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어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4), 201-225.
- 남순현. (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류근필. (2022). 다문화 가정의 문화변용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능력과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4), 237-258.
- 리첸첸, 오인수, 이수경. (2016).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 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1), 101-120.
- 백성희. (201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준, 허소영. (2024). 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33(4), 293-306.
- 서선자. (2010).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선자, 금명자. (2012). 재한 일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인간이해*, 33(1), 35-47.
- 손한나, 오한나, 이영호. (2011). 유학생의 자기결정적 동기, 문화적응, 정신건강의 관계. *인격교육*, 5(1), 83-107.
- 송원영, 리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학교심리학회지*, 5(2), 159-173.
- 신경숙. (2025).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안전문화연구*, 49, 141-155.
- 오한나, 박봉순. (2024).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적응유형 특징과 상관 요인에 관한 고찰-K대

- 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82, 355-374.
- 왕언려. (2015). 중국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아신, 최아론. (202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3(1), 57-74.
- 유지형, 이주희, 박순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511-520.
- 이만제. (2018). 중국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감,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유형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9, 5-40.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이지은. (202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485-502.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 박경아. (201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역량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9.
- 이예슬, 김은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295-316.
- 이유경, 장미경. (2024). 외국인 신입생 대상 학부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현황 분석: 유학생 수 상위권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101, 317-346.
- 이태현, 김민지. (2016). 유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6(1), 71-88.
- 임영은, 노은희, 임동선, 오인수. (2026).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및 성격·행동특성이 유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32(1), 753-774.
- 장혜경, 한수정, 양남영, 유명란, 고은자, 김희경, 임정춘, 이미라, 손연정. (2010).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성인간호학회지, 22(6), 653-662.
- 정명희. (2011). 국제사회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15(2), 451-481.
- 정유리.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및 일상생활 어려움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8(2), 150-185.
- 주동범, 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주학, 김성봉, 이세자. (202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문화와융합, 45(5), 871-880.
- 차봉준. (202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 방안 연구. 리더러시연구, 13(2), 367-391.
- 최경식. (2019).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복지과 문화다양성 연구, 1(1), 1-24.
- Ailing, J., & 오인수. (2017).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대학

-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8(4), 209-224.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aker, R. W., & Siryk, B. (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 Dao, T. K., Lee, D., & Chang, H. L. (2007). Acculturation level, perceived English fluency, perceived social support level, and depression among 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1(2), 287-295.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hu, D. S. (1994). An examination of the psychological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7, 229-239.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chwartz, S. J.,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5(4), 237-251.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rd, C., & Kennedy, A. (1999). The measurement of socio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4), 659-677.
- Ward, C., & Rana-Deuba,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4), 422-442.
- Wilcox, P., Winn, S., & Fyvie-Gauld, M. (2005).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0(6), 707-722.

Abstract

Acculturative Stres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by Acculturation Type among International Freshmen

Lim, Youngeun·Oh, Insoo·Yim, Dongsun·Ro, Eunhee(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cculturation types among international freshmen enrolled in a Korean university and examine differences in acculturative stres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ross these typ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12 first-year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A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acculturation types, followed by one-way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he cluster analysis yielded four distinct profiles of acculturation among international freshmen: separation-dominant, integration-assimilation, marginalization-dominant, and assimilation-marginalization. Acculturative stres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integration-assimilation type than in the other three types. Additionally, overall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tegration-assimilation type than in the marginalization-dominant type, while in terms of sociocultural adaptation, both the assimilation-marginalization and integration-assimilation typ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than the marginalization-dominant type. Furthermore, results from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ndicated that acculturative stres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differentiating acculturation types, and,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it significantly reduced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integration-assimilation type relative to the assimilation-marginalization typ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ailored support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freshme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and early intervention measures for students with vulnerable acculturation profiles.

[Keywords] International freshmen, Acculturation types, Acculturative stress, College life adaptation, Sociocultural adaptation